

# 시비를 가려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

글 · 이종환

강좌가 끝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강연은 매주 목요일 저녁 10주 동안 진행된 행사였다. 김정남, 정성현, 박석무, 이삼열 선생 등 민주화에 헌신하거나,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분들이 한 분 씩 초빙돼 강연을 했다.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뒷풀이까지 같이 즐겼으니 오로지 감사할 따름이다.

‘성찰하는 삶, 우리사회의 희망을 찾다’가 이번 강좌의 주제. 그러니까 나라를 붙들고 물어보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번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게 주최 측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기억에 남는 강연이 많지만, 함세웅 신부님의 특강은 거의 잊었던 10·26을 되새기게 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이날 함 신부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강연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사살한 것이 1909년. “그로부터 꼭 70년 뒤 같은 날에 김재규는 박정희를 제거했다”, “나는 구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그의 진실을 알 수 있었다” “김재규 부장은 의인(義人)이며, 10·26은 의거(義舉)이다” 그러면서 “당시 아무 힘없는 우리는 김재규 부장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김재규 부장에게 빛을 진 시대적 죄인들이다”라고 함 신부님은 말했다.

10·26이 일어났을 때 나는 대학 1학년생이었다. 이어 12·12, ‘서울의 봄’과 5·17, 5·18 등 숫자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에 나는 시위대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리둥절하게 살았다.

나중에 ‘사형이 집행된 게 아니고, 어디 살아있더라’ 하는 루머가 간간이 돌면서 김재규에 대한 기억을 일깨웠지만, 가수 심수봉의 노래처럼 ‘그때 그사람’으로 생각하

면서 잊어져 간 것 같다.

‘유신의 심장’을 쓴 ‘김재규의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삼국지』 같은데 흔히 나오는, 궁지에 처했을 때 주군의 머리를 베어서 적에게 투항을 하는 궁성 안의 내분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진실, 광장에 서다』라는 저서에서 10·26을 ‘김재규의 고독한 혁명’이라고 평한 김정남 선생은 잡지 <공동선>에 기고한 ‘패륜인가, 혁명인가’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이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10·26사건을 일으켰다는 전두환의 발표는 의외였다. 그렇기 때문에 10·26사태의 진실은 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김재규와 접견한 어느 변호사의 접견녹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녹음은 충격적이었다.……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김재규의 말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남 선생은 같은 글에서 이런 내용도 덧붙였다.

“김재규가 자유민주주의를 20~25년 앞당겼다고 말하는 것은, 박정희는 자연수명이 다할 때까지 정권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정희가 국민의 저항과 희생 끝에 물러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그가 마치 아주 명명한 지도자처럼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가능했을까. 오늘날 박정희의 부활은 역설적으로 김재규의 덕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정계에서 뜨는 것도 그쯤에서 김재규의 혁명으로 그때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다.”

최근 정년을 마친 언론계 인사는 “하기 쉬운 얘기만 쓰는 것은 컬럼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컬럼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건드리면 터질듯 한 부분을 정면으로 다뤄야지, 이를 피해 허접스런 얘기나 끄적거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면서 살자면 어지간한 용기로는 안 된다. 김재규를 의인(義人)이라고 하고, 박정희를 독재자라는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

가령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폭로가 그렇다. 진실을 외면하기는 쉬우나 밝히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거대한 벽을 상대로 고독하게 싸우면서 상대방이 쓰는 화살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함 신부님의 특강은 시비가 분명한 한 편의 컬럼으로 다가온 뜻있는 내용이었다.

독자마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 되는 분께는 사업회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희망세상』이 되겠습니다.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달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서 제 7주년 창립기념식을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회 임직원 등 50여명이 모여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립일은 언제인가?

- ①11월 11일      ②11월 15일      ③11월 12일      ④11월 30일

##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민주화운동사1』 출판기념회도 함께 하는 이날 행사의 날짜는?

- ①12월 31일(수)    ②12월 30일(화)    ③12월 1일(월)    ④12월 4일(목)

## 3.

근대적 시설을 갖춘 최초의 감옥으로 독립 이후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1998년부터 지금의 역사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역사관의 이름은?

- ①의왕 교도소      ②영등포교도소      ③서대문형무소      ④청송교도소

## 4.

공연연출가 김미영 씨는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작품을 만들며 무용, 연극, 음악 등을 결합한 실험적인 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동인제 형태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의 이름은?

- ①당당      ②플레이댄스      ③춤추는 언니들      ④퍼포먼스

### 보내실 곳

정답을 적어 12월 19일(금)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사업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hope@kdemo.or.kr 『희망세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고 당첨자는 2009년 1월호 『희망세상』에 발표합니다.

### 11월호 정답

1. 인서점
2. 전태일
3. 한빛교회
4. 명동성당

### 11월호 퀴즈 정답자

최인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문수진 인천시 서구 석남 1동  
천수미 서울시 마포구 아현 1동